| 현불 논단 |

# 탄소중립정책, '빛 좋은 개살구'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10월 18일 탄소중립위 발표한**
**NDC 상향 · 탄소중립 시나리오**
**예산 고려 全無, 제도도 불투명**
**"기후위기 못 막아" 비판 직면해**
**종교 인사 탄중위 이탈 이어져**

**기업 수익 모델, 사업 환경 우선**
**현 정책, '관료형 그린워싱' 전형**
**기후위기 대응, 국민 참여 필요**

우려했던 '폭탄 돌리기식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올해 5월 2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지난 10월 18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 · 의결했다.

회의가 열린 한강 노들섬 앞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탄중위해체공대위가 시위를 열고 '기후위기 못 막는 NDC 제출안 부결, 탄소중립위 해체'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에 따라 최소한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는 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산업계에 발목을 잡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위의 구성과 추진,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종교계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탄소중립위 국민참여 분과위원인 4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9월 30일 탄소중립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문제 등을 분명하게 짚으면서 사퇴를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가 지적했듯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 예산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고, 탄소중립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제도적 수단조차 불투명하다. 또한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과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회복 등 온통 녹색으로 위장한 관료 주도형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4대강의 속살을 파헤치고 흐르는 강물마저 막아 악취가 진동하고 녹조라떼가 넘쳐나는데도 녹생성장이라고 강변했던 이명박 정부가 재림한 느낌이다.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세계 1만 5000개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과학자 수백 명의 총의를 모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현재 약 100만종에 달하는 생물이 수십 년 내에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결과, 그 피해는 원인을 일으킨 주범인 거대 자본과 기업, 그들에게 편승해 민주주의와 자유, 진보와 복지를 누렸던 북반구의 상당수 시민들보다, 남반구의 국민들과 북반구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여전히 낯설어하는 국민이 적지 않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 공인 선진국이다. 세계 최빈국으로 출발해 1977년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이후, 2018년도에는 세계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에 가입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장시간 고노동과 저임금 등의 불공정 · 불공평 시스템을 감내했거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그 사이 빈부 격차와 가계부채는 더 커졌으며,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공장의 오폐수 등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산과 들, 강과 바다 그리고 대기마저 오염시켰다.

그런데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에는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할 '정의로운 전환'은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목소리만 반영될 뿐 피해자인 국민 다수의 이해와 요구를 온전히 전달할 시스템과 제도는 취약하다. 기후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社 說

# 대면 · 비대면 신행, 함께 준비하자

'비대면'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다. 종교도 이 같은 비대면 상황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불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에 집중하며, 유튜브 법회 · 예불 등을 열고 있다.

비대면에 적응하고 그 편의성을 알게 된 지금, 불교는 '위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대응 방안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곳이 월정사다.

월정사는 전국 사찰 최초로 온라인 방송국인 'OWBN'을 개국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OWBN'에서는 월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사시불공, 〈금강경〉 지도, 참선 등의 콘텐츠를 전부 시청할 수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신행과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월정사의 원력은 온라인 방송국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에는 메타버스에 기반한 명상 플랫폼을 선보였고, 사이버 추모관인 '온라인 수목장(가제)'도 준비 중이다.

수행-신행-제례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월정사의 일련의 계획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비대면을 선호하게 된 사찰 신도나 불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불교계는 기존의 대면 신행과 새로운 비대면 신행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해 온 월정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장은 거창한 자체 플랫폼 구축이 아니더라도, 사찰 신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면과 비대면 신행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신행 환경이 필요한 법이다.

# 장기적 시각 필요한 종법 제 ·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 2일 개원하는 제222회 정기회에 종법 제개정안 1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눈에 띄는 안건들이 적지 않다.

우선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은 제218회 임시회에서도 논의됐다가 교구본사 등 공의를 모아 다시 발의키로 하고 철회된 건이다. 과거 조계종은 재적본사 전적이 허용됐지만, 1996년 종단 내 승려의 이동질서를 바로잡고 각 교구 자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승려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이 보완책 없이 즉시 시행됨에 따라 20여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이 발견됐다. 대진 스님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다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입법 당시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제정됐다.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은 종단 등록을 독려하고 '의무가 없다면 권리도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작용에 직면했다. 최소한의 보호체계 없이 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제한하다보니, 법인 등록 절차상 결정 권한이 없는 도제들조차 교육과 수행, 포교 활동에서 제약을 받으며 오히려 탈종단화하는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법원 스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은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 종법 제개정은 더 없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도의 고민이 없다면 입법취지와 상충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의 논란으로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인 스님의
## 병상포교일기

# 가족이 그립습니다

지난 여름 한 간호사를 통해 인연이 됐던 환자에게 안부 문자가 왔다. '스님 가을비 내리면 더욱 가을이 깊어질 것 같아요.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세요.' 시를 읊조리는 듯한 표현들이 유난히 우수에 젖은 목소리여서 기억에 남는 환자였다.

젊었을 땐 한창 잘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사기와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어 의지할 곳 없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 50대의 여성 환자였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언니와 동생이 있었지만 서로 소식을 끊고 단절된 채 살아온 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산소에 오가며 자매들은 서로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리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데요 스님, 가족이 뭔지…. 너무 그리워요."라고 말하며 환자는 한참을 숨죽여 울었고 나는 전화기 너머의 흐느낌에 가슴이 아팠다.

참 무어라 위로를 해주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그저 환자가 토해내는 회한의 눈물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먼 세상에 가신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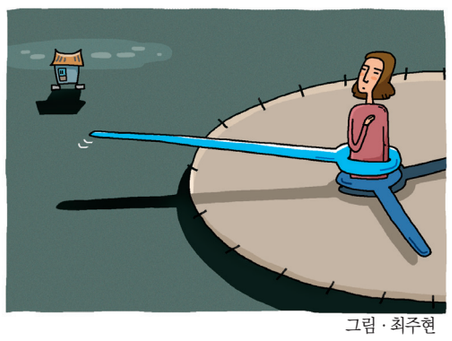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프시겠어요. 힘을 내셔요"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자, 환자는 눈물을 거두는 듯 훌쩍이며, "스님, 며칠 전 꿈에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큰 도장을 제게 주셨어요. 그 꿈을 꾸고 '거룩한 만남'과 연결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빨리 몸을 추스르고 언니와 동생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보겠다고 다짐하던 떨리는 목소리가 엊그제인 듯 귀에 맴도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벌써 지난 여름의 일이 되었다.

'문자를 보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용기를 냈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환자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소소한 일상의 소식들을 전해주었다. 불자들의 도움 덕분에 고장난 시계같던 '고장난 자신의 인생'이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모처럼 웃음소리를 전했다.

언니와 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는지 물었더니 환자는 좀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은 아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보자고요"하고 천천히 얘기했다. 나는 괜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미안했다. "아휴, 많이 실망했겠어요." "아녜요. 스님, 그래도 문자를 보내왔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고 감사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그늘을 드리운 환자의 외로움이 전해졌다. 한 시인의 시구처럼.

**산그늘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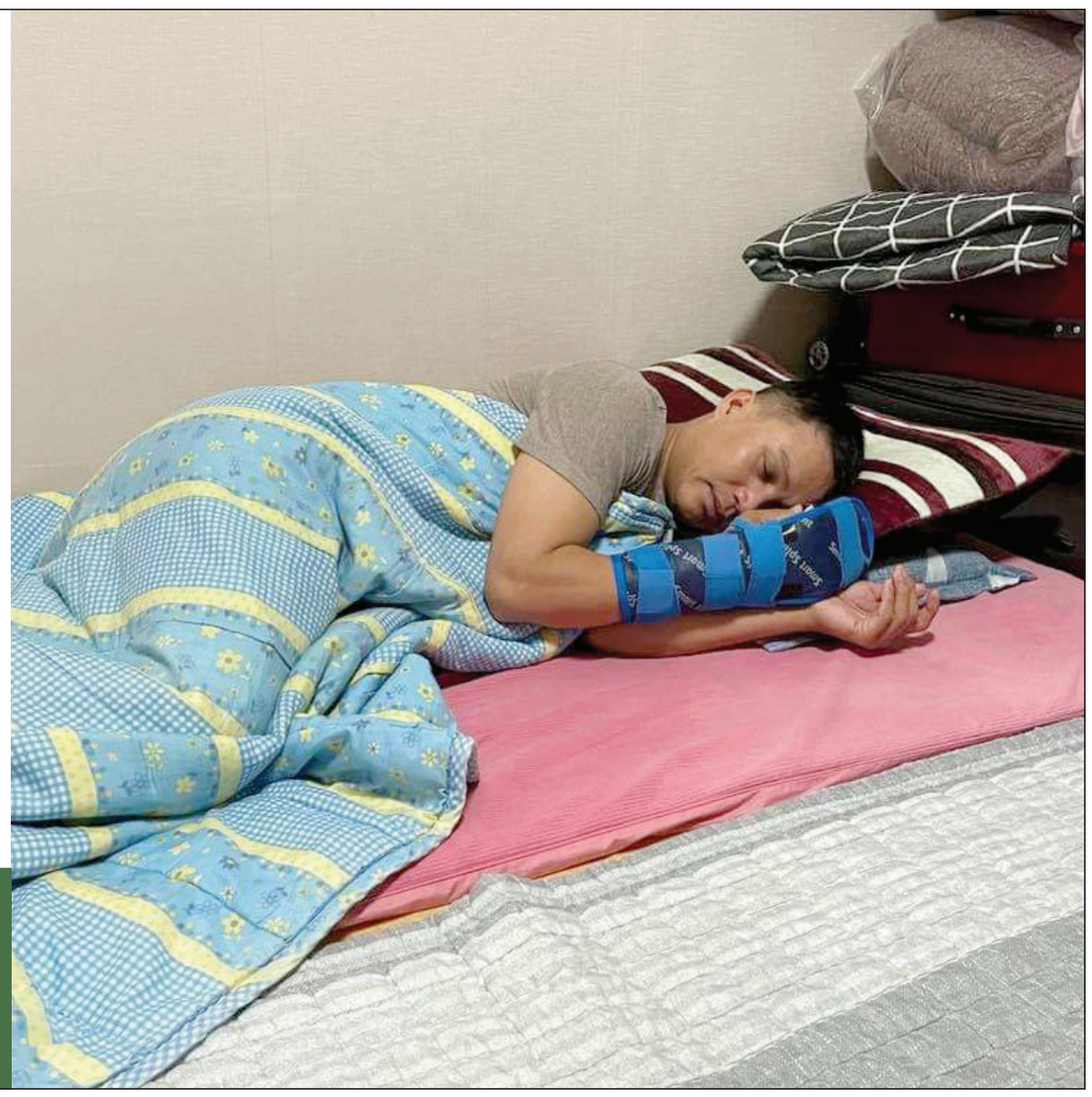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일시호일

손가락 잘려나가는
끔찍했던 순간에 매일이 고통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리우띠안씨 기계에 손가락 4개 잘려
해고 당하고 기숙사서도 쫓겨나…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